

# 박카스, 비타500에 추월당했다!

## 4월 매출 박카스 98억원에 비타500 107억 원 ... 경품행사 탓?

국내 드링크 시장의 대명사인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2005년 4월 처음으로 월 매출 1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업체에 따르면, 박카스는 2005년 4월 98억원의 매출을 올려 <마시는 비타민> 슬로건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동제약의 비타500이 기록한 107억원에 뒤졌다.

박카스는 1월 85억원, 2월 107억원, 3월 138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4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

반면, 비타500은 1월 63억원, 2월 68억원, 3월 87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며 4월 처음으로 100억원의 매출을 넘었다.

광동제약은 5월에도 비타500의 매출을 125억-1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갈수록 박카스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5년 1500억원이 매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 관계자는 “식품인 비타500은 뚜껑을 열어 특별한 표시가 나오면 1병 더 주는 경품행사를 하고 있지만, 박카스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없다”며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4월 박카스의 매출부진은 기존의 박카스F를 타우린 함량을 높인 박카스D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타500의 4월 매출은 공시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12>